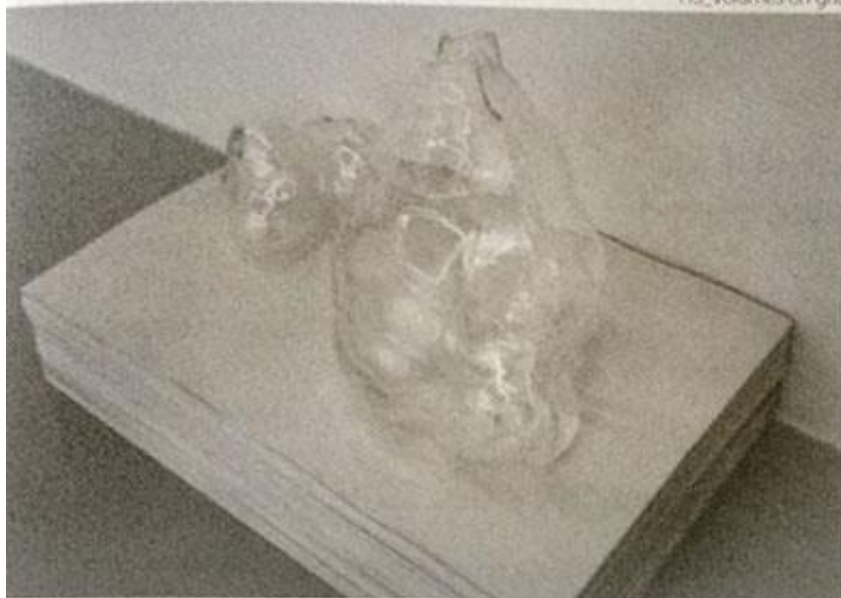


HS_Volumes on grid



헨릭 스트롬베르크 (Henrik Strömberg)

모프-(Morph-, 형태)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변화일 뿐만 아니라 형태와 기표의 변형이며, 항상 예상 가능한 상태로 존재한다. 형태의 변형과 내용의 변화는 동시에 일어난다. 물질은 각기 다른 매체를 통해 형성되고 전달되며, 모든 요소는 여기저기로 이동하며 동시 발생하고, 결국에는 그 의미들을 덮어 버린다. 그 무엇도 고립될 수 없으며, 화산의 마그마가 분출할 때처럼 모든 것은 변이한다.

과거 의미들의 핵심이 또 다른 관점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해석한 사진작품 안에서, 스트롬베르크는 이미지의 중심적 내용을 분열시키는 요소들을 줄이고자 한다. 그는 명료성에 안주하기보다 대상의 새로운 존재성의 창시를 추구한다. 명료성을 떠나서, 이러한 방식은 결과적으로 보는 이를 예기치 못한 결과물과 일시적 내용에 노출 시킨다.

양감을 지닌 물질들과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형태를 구체화하는 동안, 모프-(Morph-, 형태)는 그 과도기에서 작용한다. 서로 다르게 보이는 요소 간의 결합을 통해 형성된 소생태계는 논리적 과정에 의한 결과로서 나타나기도 한다. 사진의 요소, 네거티브 컷아웃(negative cut-outs), 종이와 조형적 부피감은 공존하지만, 이들은 우연히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들의 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다양한 요소는 각기 다른 작품에 대한 폭넓은 통찰력을 전달하며, 이는 모든 요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춤과 같다.



HS_Rings on top

일련의 반사, 이미지들의 분배, 설치 작품의 수직성은 보는 이가 이동하면서 복잡한 요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머시브 랜드스케이프(immersive landscape)의 형태를 갖춘다. 이는 장황하지 않고 일관적이다. 특정한 해석보다는 마치 만화경과 같이 최종 결과물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존재한다. 여기서 -오(-O)는 물질을 축소 시키는 동시에, 그 물질의 부피를 계속 해서 팽창시킨다. -오(-O)는 무언가를 통한 움직임의 그리드(grid), 시도, 부피,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동하는 움직임의 주체이다. -오(-O)는 조형적 부피감의 그리드(grid)를 통해 팽창하는 유리이고, 그의 사진들에 나타나는 순간적인 분위기의 묘사이다.

스트롬베르크의 사진 작품에서의 압력은 본질이 제거된 순간적인 대상의 하나이다. 이는 그의 대형 사진 작품에 등장하는 조각된 돌의 질감을 드러내는 표면 패턴 중의 하나로, 이 압력은 '오브제 트루베(objet trouvé)'의 유산이며 스트롬베르크의 다른 유사한 사진들에서 재결합된다. 조각품에서의 압력은 유리 덩어리, 종이, 파편에도 끊임없이 존재한다. 압력은 매체, 요소, 내용, 새로운 의미, 새로운 길의 축적에 수직성을 부여한다. ●

PHOTO DOT

2019. 09. VOL 59

P.040, ISSUE 1, Daegu Photo Biennale in BERLIN

'Morph-O. Isolation of (portable) pressure. This special exhibition, planned as a pre-event for the Daegu Photo Biennale in 2020, is a new international project which introduces Korean photography abroad by presenting talented Korean artists with artists who are established in the European art world. The Daegu Photo Biennale aims to raise the awareness of Korean visual arts and this project is expected to initiate a new path focused on developing exhibition projects and present the culture tendencies in Korea, which has previously mainly introduced famous foreign artists in Korea. The special exhibition taking place in 2019, Daegu Photo Biennale in BERLIN, is curated by the Italian curator Chiara Valci Mazzara, based in Berlin and working actively between Germany and Italy in collaboration with Daegu Culture and Art Center. The title and concept of the exhibition is "Morph O", which is meant as the synthesis between the word "Morph" that stands for the concept of shape and of the change of state and "-O" that symbolizes the acceptance and inclusion of the state, through which, the creative work of the participating artists, allows to contemplate the meaning of the interaction along with the transformation of materials appearance and constituents.'